



대한성공회

박동신 오네시모 의장주교

04519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정동)

전화 (02) 738-8952 팩스 (02) 737-4210

2025년 8·15 한일성공회 공동선언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 5:9)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사야 2:4, 미가 4:3)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로 **한국의 광복과 일본의 패전 80주년**을 맞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화해와 평화의 소명을 되새기며, 한일성공회 주교회의의 공동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과거에 대한 회개

일본성공회는 과거 한반도에 가한 **식민지 지배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한반도의 형제자매들에게 씌운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남북분단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용서하심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구합니다.

한일성공회는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이 뜻깊은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 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에베소서 4:32).

현재에 대한 성찰

지금 세계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종청소’,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계 도처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전후 하느님의 은혜로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전쟁을 포기하고 어떠한 무력을 갖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정신을 소중히 지키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있지만, 하느님께서 **화해와 일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열된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한일성공회는 지난 40 여 년간 진실한 교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한일성공회 **청년들이 지속적인 교류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은 하느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또한 **대한성공회 출신 성직자들이** 일본성공회의 목회 현장에서 선교협력자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양국 성공회의 교류의 결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우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화해의 직분을 되새기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2고린토 5:18).

- **사랑을 실천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겠습니다.

- **진리를 추구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용서로 응답하겠습니다.

- **평화의 증인이 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지지하며, 군사적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에 헌신하겠습니다.

-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하느님의 은혜로 화해하고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과정에서 한일성공회가 평화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희망을 나눕니다.**

젊은 세대들과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교류와 교제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우리는, 80년 너머 아픔의 역사를 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움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일에 헌신하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그날을 함께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우정과 신뢰가 한일간의 화해와, 한반도의 화해와 일치, 나아가 **동아시아의 화해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시편 133:1)

한일성공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화해의 사명을 감사히 받들어,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박동신** 오네시모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우에하라 에이쇼** 다윗

한일 양국 성공회 **주교회**